

7차 광주 Youth Note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목차]

I.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

1. 정치참여의 의미
2. 정치참여의 계기
3. 정치참여 경험으로 인한 변화

II.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실태에 대한 인식

4. 사회문화적 측면
5. 교육적 측면
6. 기구적 측면

III. 실태조사 분석 결과

7. 시민성
8. 정치참여 경험
9. 시민성 및 정치참여 경험 관련 변인
10.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

[자료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2023.

I.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

1. 정치참여의 의미

-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정치참여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또는 ‘시위하는 것’ 과 같이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을 제시
-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지역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 표출 방법으로 ‘지자체장에게 편지 보내기’ 나 학교 자치활동, 특히 임원 입후보와 같은 활동 언급
-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정치참여는 초등학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결과’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
- 의견 제시를 넘어 그러한 의견을 갖도록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까지 정치참여로 보고 있음
- 의견 제시와 문제해결 활동은 문자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누구나 의욕,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중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음
- 고등학생들이 제시한 정치참여는 직접투표, 정당가입, 단체활동, 1인시위 등 매우 다양하게 제시
- 대학생이 생각하는 정치참여는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참여를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음
- 좁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
-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누구나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

2. 정치참여의 계기

- 청소년들은 정치참여의 계기로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의 학습경험을 강조
- 부모님의 대화를 듣는 것, 선거가 있을 때 부모가 자녀를 동생시키는 것, TV나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 등이 가정에서의 일상적 학습경험이라고 생각함
- 이를 통해 정치 성향, 정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분위기,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고 되고,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며 정치참여에 관심을 두게 됨

- 다양한 청소년 정치참여 장(場)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계기로 작용함
- 학급 및 학교자치나 학교 밖의 다양한 청소년기구 등이 그것으로, 이러한 장(場)에서 활동하는 또래들의 모습은 정치참여 동기를 불러일으킴
- ‘권력욕’이나 ‘멋있어 보인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학급 또는 학교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하거나, 학급 회의나 대의원, 모임 등에서의 역할과 활동에 자극을 받아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 정치참여의 ‘성공 경험’이 있는 경우, 기존 정치참여 활동이 매개의 역할이 되어, 다른 정치참여 활동으로 확장·지속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공 경험’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동안 해 왔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됨

3. 정치참여 경험으로 인한 변화

- 정치참여 경험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됨으로써, 정치효능감이 높아졌다는 것
- 제안한 의견이나 정책이 현실에 반영되어 실제 구현되는 것과 같은 ‘성공 경험’은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효능감을 증진하는데 큰 역할
- 일상생활과 학급 및 학교 자치활동을 통해 갖게 된 관심은 청소년참여위원회, 기자단 등 학교 밖 활동으로 확장되며, 내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
-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 이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음
- 이는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능력 등 매우 다양함

II. 청소년의 정치참여 지원 실태에 대한 인식

4. 사회문화적 측면

- 청소년 정치참여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
- 우리 사회는 1980년대 이후 민주화를 이루었고, 법적으로는 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되는 등 표면적으로는 정치참여가 보장되어 있음
- 그러나 ‘어떠한 정치참여’를 보장하거나 지원해야 하는지, 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
- 청소년 스스로도 정치참여가 성인들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나, 부정적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5. 교육적 측면

- 교사들은 정치참여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시행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하다는 점을 제기
-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이란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지침보다는, 정치참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교과, 교실, 학교에서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의미함
- 정치참여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임 ‘참여’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결국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점, 교사도 정치참여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논의 됨
- 일상생활에서의 학습은 교수자-학습자라는 정해진 관계에서 명확히 안내된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없이, 자연스럽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짐
- 다만 일상적인 학습이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매개라는 점에서, 그 질의 담보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됨
- 학교, 학교 자치 활동은 학생들이 정치참여에 대해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중요한 정치입
- 이러한 활동이 사전 교육이나 기본적인 규격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학생과 교사 모두 정치참여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6. 기구적 측면

-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기구조차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 구조,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계획했다는 청소년 정치참여기구의 운영 방식은 절차적 측면에서만 완벽할 뿐이라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인정이 없어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동기가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여기서 ‘사회적 인정’은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이 입사를 포함한 진로 활

- 동에, 학생이 성취한 역량이자 성과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 정치참여에 큰 관심이 없어도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된다는 이유로 참여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정치참여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음
- 청소년 정치참여 기구 활동에 대한 안내나 길잡이 없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위화감을 느끼게 됨을 언급함
- 초등학생의 경우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정립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기구에 참여했거나, 연령상 아동과 청소년에 걸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점을 더욱 느끼게 된 것으로 파악됨
-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 부족은 참여기구 활동이 지속되고 확대되는 데 큰 장애라는 점이 지적됨
- 대다수 청소년은 이러한 장치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경험한 학생들만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면서 청소년 참여기구가 지속, 확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Ⅲ. 실태조사 분석 결과

7. 시민성

- 시민성의 개념을 ‘좋은 시민의 역할에 기대되는 가치 규범의 집합’으로 정의
- 이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 규범으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 총 6가지를 도출하였음

구분		설명	
시민성의 개념		좋은 시민의 역할에 기대되는 가치 규범의 집합으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의 가치로 구성	
좋은 시민의 유형 및 규범	참여적 시민	참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미 및 실천
		자율	민주주의적 숙의를 위한 지식 습득과 타인의 의견 존중
	정의 지향적 시민	연대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
		평등	모든 사람의 존엄과 동등한 권리 존중
책임 이행적 시민	사회질서	사회체계의 수용과 신뢰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	
	애국	소속 구각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시민성 개념과 구성요소

(1) 참여

-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에 대한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함
- 평균 초(2.68점), 중(2.57점) 고(2.62점)기록해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점수가 높았음
- 초·중·고생의 집단 평균이 모두 3점을 밑돌고 있으므로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해 절대적 맥락의 수용적 태도는 어느 집단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2) 자율

- ‘민주주의적 숙의를 위한 지식 습득과 타인의 의견 존중’에 대한 초·중생의 경우 각각 평균 2.96점, 2.95점을, 고등학생은 평균 3.09점으로 집계
- 근소한 집단 차이지만 고등학생의 집단 평균만이 3점을 웃돌고 있으므로 절대적 맥락에서의 수용적 태도는 고등학생 집단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음

(3) 연대

-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고생의 평균이 각각 2.88점, 2.86점으로 집계
- 연대 가치 규범에 대한 중·고생의 수용적 태도에는 차이가 없고, 중·고생 모두 초등학생 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

(4) 평등

- ‘사회체계의 수용과 신뢰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에 대한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중학생이 평균 3.45점, 고등학생이 평균 3.38점으로 나타남
- 학교급이 낮을수록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 사회질서

- ‘사회체계의 수용과 신뢰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에 대한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3.03점, 중학생이 평균 2.79점, 고등학생이 평균 2.67점으로 나타남
- 이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말해줌

(6) 애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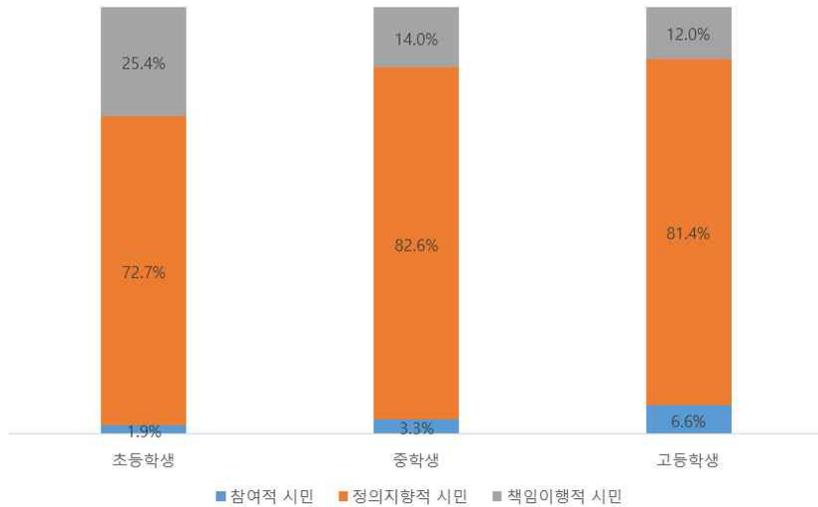
- ‘소속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3.68점, 중학생이 평균 3.30점, 고등학생이 평균 3.18점
- 교급이 높아질수록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의미
- 초·중·고생의 집단 평균이 모두 3점을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해 세 집단 모두 절대적 맥락에서의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집단 평균



- 6개의 가치 규범에 대한 개별 응답자의 수용적 태도 점수를 활용해 해당 응답자의 참여적, 정의 지향적, 책임 이행적 성향을 계산하고 이 중 가장 높은 점수가 집계된 성향을 판별
- 그 결과 정의 지향적 시민으로 구분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초·중·고 집단에서 정의 지향적 시민의 점유 비율은 각각 72.7%, 82.6%, 81.4%에 달함
- 참여적 시민의 점유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1.9%,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6.6%에 그침
- 앞서 참여라는 가치 규범에 대해 초·중·고생 집단이 공통으로 보여주었던 낮은 수용적 태도가 여기서 확인된 셈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집단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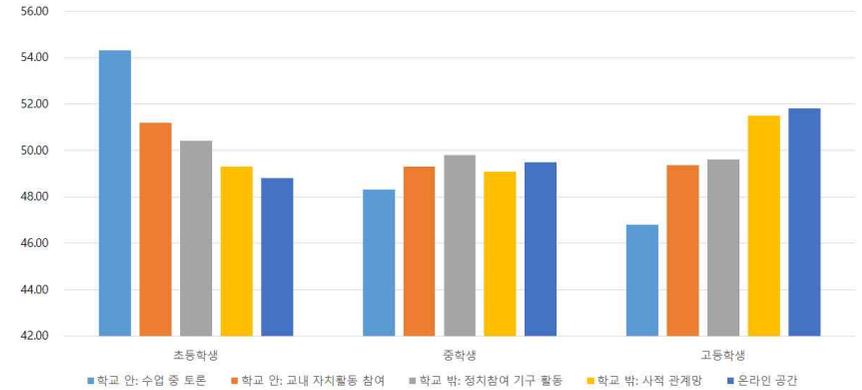
- 우리나라 초·중·고생은 좋은 시민의 세 가지 유형 중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 존엄과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정의 지향적 시민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8. 정치참여 경험

- 학교 안에서는 초등학생 집단의 참여 경험이 두드러졌지만, 학교 밖 특히 친구나 부모 등과 같은 사적 관계망에서의 경험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경험은 고등학생 집단이 두드러졌음
- 초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치참여 경험은 학교 내 수업 중 토론이었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은 가장 적었음
- 고등학생의 정치참여 경험은 초등학생과 전혀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온라인 공간이나 학교 밖 사적 관계망을 매개로 한 정치참여 경험이 가장 활발했음
- 반면 고등학생은 수업 중 토론을 통해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은 가장 저조했음
- 중학생 집단의 정치참여 경험은 초·중·고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중학생 집

단의 정치참여 경험이 학교 안팎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정치참여 유형에 따른 경험 수준(T 점수)의 집단 내 편차



9. 시민성 및 정치참여 경험 관련 변인

(1) 참여 효능감

- 시민적 참여 활동에 대한 자신감은 응답자가 학교 안팎에서 정치·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 연설, 기고, 후보자 출마 등 시민적 참여 활동을 얼마나 잘 수행할 것 같은지를 측정
- 초등학생의 평균이 2.45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점수가 낮았음
-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적 자신감과 고난도의 정치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통해 측정
- 고등학생의 집단 평균이 2.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초등학생이 2.38점, 중학생이 2.34점을 기록
- 학생 주도의 교내 정치참여에 대한 집단효능감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집단 평균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평균은 각각 3.22점, 3.18점으로 집계

(2) 소속 학교의 민주적 문화(학교 민주주의)구현 수준

- 초·중·고생 응답자 대다수는 일상적 학교생활 영역에서만 아니라 학교 운영 및 의사결정 영역, 교육과정 영역 등 학교 전반에 걸쳐 나름의 민주

- 적 문화와 가치가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3) 본인의 정치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 및 매체
- 학교 선생님의 영향력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평가되고 있음
 - 유독 초등학생의 평정 점수가 부모님의 영향력에 상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정치참여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과 실천 역량 학습에 있어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못지않게 중요함을 의미
 - 언론매체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론의 평정 점수가 유의하게 커졌고, 이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치 견해 형성 및 정치참여를 위해 미디어 리더십 교육이 왜 병행되어야 하는지를 증빙
- (4)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 초·중·고생 결과, ‘기회와 정보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체 응답의 23.3%로 가장 많았고, ‘학생 정치참여 지원법의 부족’이 18.7% 순으로 나타남
- (5)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 학교 밖 교육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학생들이 부정적인 평가
 - 이는 청소년들이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밖 교육이 청소년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을 수준으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

(1) 학교의 핵심 시민교육 목표

- 초등학교의 경우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 ‘갈등 해결 능력’이 각각 32.8%, 28.5%로 점유율 1, 2위를 차지
- 중학교에서도 동일 목표의 점유율이 각각 41.6%, 15.9%로 1, 2위를 차지
- 고등학교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이 40.3%로 가장 높았고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개발’이 두 번째로 높은 18.1%

(2)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

- 초등학교의 경우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 ‘갈등 해결 능력’이 각각 32.8%, 28.5%로 점유율 1, 2위를 차지
- 중학교에서도 동일 목표의 점유율이 각각 41.6%, 15.9%로 1, 2위를 차지
- 고등학교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이 40.3%로 가장 높았고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개발’이 두 번째로 높은 18.1%

(3) 학교 시민교육 운영 자율성

- 전체 평가 항목 중 다른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 외부 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 등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학교 시민교육의 확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율성 점수가 낮았음

(4) 학교 시민교육 맥락에서의 참여 활동 운영 빈도

- 학생 참여 활동의 운영 수준은 중·고등학교 사이의 운영 편차는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하지만, 역할 놀이에서의 편차가 두터짐
- 다양한 주제에 대한 모둠 활동, 온라인 자료를 이용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초·중·고 공통으로 학교 시민교육 맥락에서 자주 운영되는 참여 활동으로 확인됨

(5) 학교 구성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수준과 지원 환경

- 초·중·고 가운데 중학교의 의사결정 환경이 가장 학교 구성원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평정 평균이 대부분 3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학교 현장은 학교 구성원 친화적인 의사결정 환경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